

한국 여성문학론의 역사와 이론

이상경*

1. 머리말
2. 한국 근대 여성문학론의 복원과 재인식
3. 여성문학론의 현실성 : 여성해방문학론에의 지향
4. 여성문학론의 주체성과 식민성
5. 한국 여성문학론의 나아갈 길

초 록

1990년대의 폭발적인 페미니즘 열기는 여성문학연구에 활기를 불어일으켰지만 문학연구의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혹은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문화 상업주의와 맞물려 진행되면서 억압에 저항하고 여성의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여성해방'이라는 본래의 의도는 희석되어가고 있는 듯한 우려가 있다. 이제 한국 여성문학연구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자 하는 자기 내부의 욕구에 직면한 시점에서 여성문학연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본다면 나아갈 길의 **방향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역사적 연구를 통해 한국근대여성문학론의 복원과 재인식이 필요하다. 여성문학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신의 현실의 문제의 역사를 캐고자 하는 많은 여성연구자들의 열정에 의해 역사적 연구의 성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는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에 의한 여성 경험 말하기로서 여성의 글쓰기에 **주목한**

*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한국문학).

이 논문은 1998년 12월 5일에 있었던 한국여성문학학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나혜석의 입장이라든지, 남성중심 평단에 의해 변방화된 '여류'작가 논의를 비판하고 여성작가들의 성과물을 온당하게 평가한 여성 비평가 임순득의 비평활동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여성의 억압받는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여성문학이론이 되어야 한다. 한국여성문학론의 출발은 우리 여성 자신의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했으나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의 유입과 함께 한국의 여성 현실파는 동떨어진 이론적 논의들이 융성하고, 여성이 1990년대 대 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해서는 기피하는 경향을 낳았다. 왜 우리가 이곳, 이때에 여성문학을 논의하고 연구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셋째 한국의 여성 현실과 문학 현실을 대면하면서 방법론을 개척해야 한다. 1990년을 전후하여 외국의 페미니즘 이론이 물밀 듯이 소개되면서 한국의 여성문학의 현실과 동떨어진 논의들도 단지 그것이 새롭다는 이유로, 혹은 외국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로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 삶에서의 억압이 강고한 현실에서 그것의 구조를 깨고 해방을 지향하는 이론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1. 머리말

여성문학과 여성문학론은 1990년대 들어 비평계와 창작계 양쪽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두가 되었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는 냉전체제의 와해로 그 이전에 주변에 있던 것들에 관심이 쏠리면서, 국내에서는 여성작가들이 대거 등장하고 고등교육을 받고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을 갖게된 여성 집단이 그들의 작품에 구매력을 가지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1990년대의 폭발적인 페미니즘 열기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학연구의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혹은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문화상업주의와 맞물려 진행되면서 억압에 저항하고 여성의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여성해방'이라는 본래의 의도는 희석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다. 이제 한국 여성문학연구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자 하는 자기 내부의 욕구에 직면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본다면 나아갈 길의 방향도 보일 것이다.

현재의 여성문학론의 선 자리와 갈 길을 논의하려면 아무래도 1985년 『여성』 제1호에 발표되었던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¹⁾로부터 출발해야 하겠다. 이 글은 그때까지 “남성중심적 비평기준이 보편적 기준으로 등치되어 왔던 비평 현실에서 여성 독자의 경험 내지는 ‘여성의 눈’을 새로운 비평 척도로 선언한 최초의 시도였다.”²⁾ 그런 만큼 당시 남성들로 이루어진 한국문학 평단에서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여성 독자에게도 “여성의 눈으로 문학작품을 해부하고 검토한다면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새로운 경험의 장을 열어 주었다”는 느낌을 주었으며³⁾ 1980년대 이후의 풍성한 여성문학론의 물꼬를 튼 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⁴⁾ 최초의 작품이 무엇이나 하는 호사가적인 취미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출발점에는 항상 그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발전의 전망이 의식, 무의식적으로 함축되어 있기 마련이어서이다.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 문학의 현실」의 필자들은 서언에서 다음과 같이 글 쓴 의도를 밝혔다.

우리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 문학의 현실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문학작품을 검토·비판하는 작업은 그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기성의 평단에서는 이런 시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며, 적절하게 참조할 수 있는 외국의 선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자신의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 전문적인 훈련을 쌓은 어떤 개인이 나와주길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우

-
- 1) 정은희·박혜숙·이상경·박은하,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 『여성』 제1호(창작과비평사, 1985).
 - 2) 김영혜·이명호·이혜경, 「여성문학론 정립을 위한 시론」, 『여성운동과 문학』(실천문학사, 1988), p.280.
 - 3) 조은, 「『여성』이 제시하는 ‘올바른’ 여성운동의 방향은?」, 『열린 사회 자율적 여성(또 하나의 문화, 2)』(1986).
 - 4)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 문학의 현실」이 ‘여성으로서의 독해’를 최초의 실천 비평으로 열어보인 선도적 역할을 했으며, 실천비평의 표본을 원했던 국내 페미니즘 문학 지망자들에게 상당한 몫의 기여를 했다는 평가도 있다. 송지현, 『다시 쓰는 여성과 문학』(평민사, 1995), p.145.

리는 평범한 여성 독자로서 문학작품을 읽을 때 느끼던 불만과 의혹, 바램 등을 정리해보자는 소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나(……).⁵⁾

요컨대 이들은 당시 한국 사회의 여성들이 당면한 ‘현실’적 요구로부터 ‘여성의 관점’에서 문학작품을 읽고 싶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행연구도, 참조할 수 있는 외국의 문학이론도 찾지 못하여, ‘소박’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제기로부터 10년도 훨씬 더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이들이 제기한 여성문학 논의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해결되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오히려 더 절실해진 것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제기한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우리들 여성문학연구의 역사와 전망을 밝히는 한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첫째 이들은 선행 작업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선행작업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들이 한국 근대 여성문학과 여성문학론의 역사에 아직 무지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여성문학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신의 현실 문제를 역사적으로 캐고자 하는 많은 여성 연구자들의 열정에 의해 역사적 연구의 성과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지만 아직 초보적인 자료정리도 제대로 안된 수준이기에 역사적 연구는 그때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둘째 이들의 여성문학연구(비평)는 억압을 뚫고 나오려는 한국 여성의 현실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적의식과 전투성을 가졌던 것에 비하면 지금의 연구는 그런 부분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1980년대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 문학의 현실」 이후에 나오기 시작한 초기의 글들에서도 뚜렷했으나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특히 포스

5) 정은희·박혜숙·이상경·박은하,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 앞의 책, p.6.

트 모더니즘 이론의 유입과 함께 한국의 여성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론적 논의들이 융성하고, 여성이 1990년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경향을 낳았다. 왜 우리가 이곳, 이때에 여성문학을 논의하고 연구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셋째 이들이 외국의 문학이론에 특별히 기대지 않고 한국의 여성 현실과 한국의 문학작품에 대면하면서 방법론을 고민하여 당시의 평단에 충격을 가한 것에 비해, 지금의 많은 논의들은 특정 외국이론에 적용할 만한 대상으로서 우리의 여성문학 작품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을 전후하여 외국의 페미니즘 이론이 물밑 듯이 소개되면서 한국의 여성 현실과 동떨어진 논의들도 단지 그것이 새롭다는 이유로, 혹은 외국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로 수용되어 한국의 여성문학은 여성의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대상으로 전략한 느낌마저도 있다. 최신의 외국문학 이론을 적용하는 장으로 한국여성문학이 전략하고 문학연구의 식민성을 확연히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문제제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든 부정적인 측면에서든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 여성문학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2. 한국 근대 여성문학론의 복원과 재인식

한국 근대 여성문학론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아직 없다. 여성 작가와 작품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산발적으로 그 당시의 남성 비평가들이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평한 글(그것도 대부분은 월평 수준의 단평들이지만)을 살펴보기는 했지만 그런 평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론적 입장을 가지고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는 못했으며, 몇 안되는 연구나마 ‘여성적 시각’을 가지지는 못했다고 평가된다.

우리 여성문학론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인 최초의 시도는 「여성문학론 정립을 위한 시론」⁶⁾일 것이다. 거기서는 1930년대 일부 남성 비평가에

의해 문단 일각에서 논의되었던 ‘여류작가 논의’는 전반적으로 인습적인 ‘여성성’을 그대로 ‘여류작가’에게 주문하고 평가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고, 해방 직후 프로 문학 진영에서 몇몇 남성 비평가들이 최초로 여성문체에 대한 인식 위에서 문학과 여성의 문제를 다루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국문과 대학원에서 여성작가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1980년대 중반 본격적인 여성문학론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여성문학론 연구사를 개괄했다. 그러나 그 연구에서 주목한 1930년대 ‘여류작가 논의’란 저널리즘에 영합한 선정적인 비평⁶⁾을 너무 과장되게 평가한 것이며, 여성문학인들의 글쓰기에 대한 진지한 자기 고백은 미처 보지 못한, 협소하고 또한 ‘남성중심적’인 것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 근대 여성문학사의 출발 지점에 ‘여성해방 문학’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통해 그것을 실천한 나혜석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나혜석이 소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비평적 에세이를 통해 여성의 경험을 글로 쓰는 행위는 일차적으로 여성 독자를 향한 것이며, 여성의 고유한 경험을 공론화하고 공유함으로써 여성의 문제를 좀더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임을 천명하는 여성문학론의 중요한 측면을 언급했음에 대해서는 아직 주목하지 못했다. 더 문체는 1930년대 여성작가들에 대해 ‘여류작가’로서 관습적인 ‘여성성’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여류작가 논의’를 비판하면서 ‘여류작가’도 여성 이전에 작가임을 강조한 임순득의 논의를 그냥 지나치고 있다는 것이다.

1) 여성의 글쓰기는 여성의 체험을 공유하고 공론화하는 것이다 : 나혜석

자전적 소설 「경희」(1918)가 발굴되어 한국 근대 문학사에서 자기 위치를 정립하기 이전까지 문인으로서 나혜석은 「이혼고백장」으로 대표되었다. 김우영과 이혼하고 난 뒤에, 자기와 김우영이 연애할 때로부터 시

6) 주2) 참조.

7) 김문집의 비평이 주로 그러하다.

작하여 행복한 결혼생활과 구미 여행을 거쳐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심경을 솔직하게 써서 대중매체에 발표한 「이혼고백장」은 내용의 솔직함과 개인의 사생활을 자발적으로 공개한다는 형식의 파격성 때문에 당시 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나혜석이 당시의 주류 사회로부터 백안시당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출증적 광태라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이혼고백장」 이전에도 나혜석은 이미 「모(母)된 감상기(感想記)」, 「부처간의 문답」같이 결혼한 여성으로서 자기 경험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글들을 발표했으며, 사회적 비난을 받은 「이혼고백장」 이후에도 계속 의연하게 「신생활에 들면서」, 「이성간의 우정」처럼 이혼한 여성의 입장을 드러내는 글을 발표했다.

이런 글들에서 주장된 여성해방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나혜석이 '신여성'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계몽적 글쓰기로 출발할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드러내는 여성적 글쓰기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새롭게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나혜석의 일련의 자기 고백적 글들은 당시 비난처럼 '노출증'이 아니다. 물론 당시의 잡지들이 화제의 인물인 나혜석의 사생활을 기사화하는 것에서 상업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러한 글쓰기를 부추겼을 것은 당연하다. 나혜석도 행복할 때면 행복을 보여주기 위해, 불행하고 곤궁할 때는 원고료를 위해서 그런 글들을 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혜석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글쓰기를 하게 된 추동력은 그러한 현실적인 필요 이상의 것이 있었다. 그것은 여성의 고유한 체험을 공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어야 한다는 책무감이었다. 이 점을 우리는 나혜석의 「모된 감상기」⁹⁾와 이를 둘러싼 논쟁에서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다.

8) 이 점에 대해서는 이노우에 가즈에(井上和枝), 「나혜석 여성해방론의 특색과 사회적 갈등」, 나혜석 바로 알기 제1회 국제심포지엄(1999.4.27) 발표 논문 참고.

9) 나혜석, 「모된 감상기」, 『동명』, 1923.1.1.~1.21(4회 연재), 본서 pp.393~396.

나혜석은 첫딸의 돌이 되었을 때, 즉 어머니 노릇한 지 일년이 되었을 때 여성이 어머니가 되면서 인간으로서의 자기 발전에는 엄청난 장애를 받는다는 점을 어머니가 되어보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자식은 모체의 살점을 떼어가는 악마'라고 하여 '모성의 신화'를 부정하는 글 '모된 감상기'를 써서 발표했다. 모성의 신화를 깨뜨리려는 노력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본격화된 것을 생각한다면 거의 80년 전에 쓰여진 이 글은 매우 충격적인 보고서이다. 근대사회에서 공적 영역으로 나온 많은 어머니들이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자기 발전과 사회적 활동을 가로막는 현실 속에서 참된 기쁨으로 태어날 아기를 맞이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남모르는 죄책감을 느끼면서 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본능적인 것으로 신비화된 모성에 대해 자기의 체험을 중요한 무기로 하여 부정한 나혜석의 이 글은 한국의 여성해방론에서 획기적인 글이다.¹⁰⁾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임신부터 시작되는 '어머니 되기'가 행복이 아니라 공포라는 것, 피하고 싶은 장애물이라는 것을 솔직히 토로하고, 또 분만시의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시를 통해 솔직히 표현하여 여성의 육체에 대한 논의를 기피하는 금기를 깨뜨린 나혜석의 용기, 혹은 글쓰기에 대한 여성적 자의식이다.

당시 사회의 금기를 깨뜨리는 나혜석의 '모된 감상기'가 발표되자 '백결생'이라는 필명을 가진 남성은 「관념의 남루를 벗은 비애」라는 글에서 “임신이라는 것은 여성의 거룩한 천직이니 여성의 존귀가 여기 있고, 여성이 인류에게 향하여 이행하는 최대 의무의 한 가지인 것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¹¹⁾ 이에 대해 반박하면서 나혜석은 자신의 글

10) 나혜석의 '모된 감상기'는 그동안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기존에 정리, 출간된 나혜석 전집이나 연보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상경이 「나혜석: 한 페미니스트 자유혼의 패배」(『자유라는 화두』, 삼인, 1999)에서 처음 이 글을 자료로 하여 나혜석이 행한 모성의 신화 깨기에 주목했다.

11) 백결생, 「관념의 남루를 벗은 비애」, 『동명』, 1923.2.4. ~11(2회 연재).

은 “단순한 본능에서 시시각각으로 발하는 순간적 직각(直覺)을 허위 없이 문자상에 나타낸” 것이며, “독자 자신도 필자 자신과 거의 같은 경우로 거의 같은 감정을 경험치 못하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이기에 자신과 같은 경험을 가진 ‘어머니’들이 읽고 공명하면서 경험을 함께 나누기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백결생에게 답함」은 다음과 같은 희망사항으로 글을 맺고 있다.

나는 꼭 믿는다. 내 「모된 감상기」가 일부의 모(母) 중에 공명할 자가 있을 줄 믿는다. 만일 이것을 부인하는 모가 있다 하면 불원간(不遠間) 그의 마음의 눈이 떠지는 동시에 불가피할 필연적 동감이 있을 줄 믿는다. 그리고 나는 꼭 있기를 바란다. 조금 있는 것보다 많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는 꼭 단단히 살아갈 길이 나설 줄 안다. 부디 있기를 바란다.¹²⁾

여성의 어머니 되기의 경험을 함께 하지 못했고, 재래의 신비화된 모성에 대한 고루한 관념을 가진 남성은 이해할 수 없는 여성으로서의 곤혹스러움과 고통, 그런 여성의 경험을 공론화시켜 여성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욕망과 책무감에서 글을 쓴다고 밝힌 것이다.

이러한 나혜석과 백결생의 논쟁에서 나혜석은 여성의 경험은 여성만이 말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공론화시켜서 같은 처지의 여성들과 경험을 나누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점에서 나혜석이 아직 의식적인 여성문학론을 내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경험은 여성 자신에 의해 토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여성들의 글쓰기를 적극 주장하고 또한 실천했다는 점은 근대 여성문학론의 역사를 살피는 초두에 반드시 명기해 두어야 할 사안이다. 그것은 당시 사회의 금기를 넘어서는 일이었으며 나혜석 자신을 파멸로 밀어넣는 글쓰기였으나 나혜석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12) 나혜석, 「백결생에게 답함」, 『동명』, 1923.3.18.

2) 여성작가는 여성, 남성 구별 이전에 작가이다 : 임순득

한국 근대 여성문학론의 첫 작업으로 임순득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최초의 여성비평가로서 1930년대 후반의 ‘여류작가’ 논의 속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확고하게 했다는 점에 있다. 단순하게 최초의 여성 비평가라든가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 문학이란 어떠한가 될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여성문학에 대한 왜곡된 견해와 맞섰다는 점에서이다. 이 점에서 임순득은 1980년대부터 새롭게 전개된 한국 여성문학론의 원초적 경험인 셈이다.

여성평론가로서의 임순득에 대해 여성문학 연구자들이 처음 눈을 돌린 것은 「여성문학론 정립을 위한 시론」¹³⁾에서 임순득의 평문 「불효기에 처한 조선 여류작가론」을 인용하면서이지만 최초의 여성평론가로서 임순득이 가진 의의에는 주목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다. 그 뒤 최근에 서정자가 30년대 후반의 비평문에 주목하여 최초의 여성 평론가로서의 면모를 밝혔고¹⁴⁾ 여성작가로서도 소개가 되었지만¹⁵⁾ 여성문학연구자의 주목을 그리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여전히 1930년대의 ‘여류작가’ 논의를 고찰할 때면 김문집이나 안희남 같은 당시 비평가로서는 이급 이하인 인물들의 ‘남근중심주의적 비평’ 논의만 언급하는 오류를 여성문학연구자들 자신이 범한 셈이다.

임순득은 『조선문학』 1337년 2월호에 「일요일」이라는 단편소설을 발표하는 것으로 문학활동을 시작했지만 일제시대에는 작가라기보다는 비평가로서 활동을 했다. 그것도 우리 문단에서는 처음으로 ‘여성해방문학’에 대한 자의식을 가진 여성평론가였다.¹⁶⁾ 여성해방론은 계몽기 이래 중

13) 김영혜·이명호·이혜경, 「여성문학론 정립을 위한 시론」, 『여성운동과 문학』 (전예원, 1988), p.273.

14) 서정자, 「최초의 여성문학 평론가 임순득론」, 『청파문학』 제16집(숙대 국어국문학과), 1993.

15) 김재용, 「북한문학의 재발견-민족 계급 그리고 여성」, 『실천문학』 1997년 겨울.

요한 담론이었고¹⁷⁾ 여성운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여성해방론은 있었지만 여성에 의한 것이든, 남성에 의한 것이든 본격적인 여성문학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없었다. 임순득은 이러한 당시 문단과 평단의 척박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평활동을 시작했다.

1930년대 후반 카프 해체 뒤의 온갖 비평적 언설의 난무 속에서 잡지의 상업적 관심과 맞물리면서 ‘여류문학’ 논의가 남성 평론가들의 평단 일각에서 벌어졌다. 임순득은 이러한 논의에 대한 비판으로 자신의 첫 평문 「여류작가의 지위」를 써서 여류작가는 여류이기 이전에 작가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1930년대 후반이라는 특수한 시기의 작가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를 「창작과 태도」에서 논했으며 그러한 자세에 충실한 여성작가가 남성작가를 능가하는 창작 성과를 내고 있음을 「여류작가 재인식론」에서 밝혔다.

「여류작가의 지위」는 ‘특히 작가 이전(以前)에 대하여’라는 부제에서 드러나듯이 작가이기 이전에 ‘여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조건을 내세우는 문단의 현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즉 작가에게 ‘여류’라는 수식어를 굳이 붙여야 할 만큼 작가로서의 여성과 남성이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일부 남성 비평가들이 주도한 여류작가 논의에서 ‘여류작가의 의의는 여자만이 담당할 수 있는 예술분야에 속한 일체의 여자만이 갖는 감정으로 여자만이 할 수 있는 형상화를 할 수 있다는 데에서 찾는 것이다. 여류작가는 그러한 명칭일 따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임순득은 당시 유명했던 한 여성 비행사의 이름을 들며 그녀가 비행을 하면서 중력과 거리를 정복하는 데 그녀의 성이 ‘여성’이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고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고 반박한다.

16) 임순득의 삶과 소설작품 및 비평에 대해서는 이상경, 「임순득론, 혹은 여성문학사의 재구성」, 『계간 한국문학평론』, 1999년 여름호(1999.5)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17) 이에 대해서는 이상경, 「여성의 근대적 자기 표현의 역사적 의의」, 『민족문학사연구』 9(1996) 참조.

그런데 여성작가에게 여성으로서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것은 남성 평론가뿐만이 아니다. 임순득이 보기에는 일부 여성작가들 역시 ‘여류작가’라는 칭호가 가진 모욕에 대한 자의식 없이 학생 수준에 지나지 않는 글들로 작가연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여류’ 명칭이 가지는 부당성에 자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임순득의 주장이다.

인제는—아직도 늦지 않다.—우리는 그 여류작가를 작가로서 정당히 평가하기를 용의하지 않을 수 없다. 불행히도 현재의 부인 작가들에게서 작가적 섬광의 대신에 생도 작문적 재능만을 발견할 뿐이라 하더라도 또 부인 작가들 자신이 ‘여류’ 작가라는 칭호 속에 자신의 모욕과 비극성을 의식함 없이 의연히 ‘귀여운 재재거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마저 종래의 나쁜 습관에 젖어서 왜 꼭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류작가의 지위」 마지막에서 임순득은 지금까지의 그릇된 관행에 의해 “빈약한 월평들이 그때 발표된 여류작가의 작품들을 ‘여류작가’의 것으로 극히 단순하게 취급하는 일은 있을지언정 우연히 그 작품의 작자가 여자였다는 것뿐인 관점 아래에서 정당한 비평이라거나 평가는 하여진 일이 없었다”는 것을 비판해 두었다. 이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임순득은 「여류작가 재인식론」에서 강경애와 박화성의 작품을 어느 남성작가의 작품을 능가하는 성취를 이룬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제4차 간도 공산당 사건 관계자들의 사형을 증언한 강경애의 「어둠」¹⁸⁾에 대해, 당시의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 분위기와 그 시대의 상징적 사건을 증언해야 할 작가의 임무를 모두 방기하고 있을 때 어느 남성 작가들도

18) 1930~1932년 사이 일제는 대토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여 네 차례의 ‘간도 공산당 사건’을 만들어 내었다. 그 중에서 제4차의 사건은 1936년 2월에 재판이 종결되면서 치안유지법 위반에 살인 방화 강도 등의 죄목이 곁들여져 18명의 사형수를 내었고 그들은 1936년 8월 사형당했다. 이 사건이 있고 반년 만인 1937년 1월 『여성』지에 강경애는 「어둠」을 발표했다.

하지 못했던 일을 여성작가 강경애가 해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여류'라는 딱지가 얼마나 비본질적이며 문학적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인가를 힘주어 밝혀보였다.

박화성이나 강경애와 같은 여성작가의 활동에 기대를 걸었던 임순득의 평필은 2년여 뒤에 당대의 여성작가들을 질타하는 「불효기에 처한 조선 여류작가론」으로 다시 나타난다. 평론의 초두는 기대하였던 박화성이나 강경애가 그 이후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으로 시작한다.¹⁹⁾ 그리고 그 실망감이 커서 기존의 여성작가들을 진정한 의미의 여성작가로 부를 수 있겠느냐는 의문과 함께 그들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여성작가의 등장을 기대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평론의 제목도 「'불효'(拂曉 : 날이 막 밝을 무렵-필자주)기에 처한 조선 여류작가론」이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 땅에 있어서의 '부인문학'이란 어디까지나 미래를 위한 전망 속에 모셔 놓은 우리의 끊임없는 이상에 불과했고 그 명목에 상응할 부인문학의 근거는 최초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대부분 그 작가적 출발이란 철철저 저널리즘의 일각에 작문 수필 기타 잡문 등속인 만치 계절의 화초적인 존재로서 비롯하였던 것이다. 황차 그 출발이야 어찌 됐건 그들의 그 후의 행방이 그 최초의 출발의 경지에서 일보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 단지 변화가 있었다면 저널리즘에 그들의 성명이 빈번히 활자화되는 도수와 함께 자타가 시인하는 '여류작가'의 직명을 받들게 된 정도이었다.

기존의 저널리즘에 몸담고 있으면서 저널리즘의 상업주의에 힘입어 수필이나 일화 수준의 글들을 가지고 그것도 조선 여성 일반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생활행태로 작가 행세를 하는 이들에 대한 임순득의 비판은 매우 신랄하다. 그들 때문에 다른 많은 여성작가 지망생들과 일반인들이 '여류작가'라면 "시들은 카네손을 가슴에 안고 차 먹는 데를 출입하

19) 이때 박화성은 결혼으로, 강경애는 병으로 작품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는 것으로서 진실로 문화적 분위기를 향수하는 양” 오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의 작품의 경향 역시 그러하다.

우리들은 때때로 그들의 출품물을 대할 때 불현듯 이러한 생각이 든다. 이 사람들도 조선 사람인가? 아니면 조선의 여자들인가? 하고 우리의 생활 감정은 하나도 통하지 않는 무엇 때문에 이 여자들은 이러한 문장을 놓는 겐가? 참으로 의아해 마지 않는 소박한 독자의 슬픔에 붙들려 드디어 ‘여류작가’의 자부를 목살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당대의 여성작가의 부정적 모습에는 문단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남성작가와 비평가 역시 책임이 있다. 그들이야말로 위에서 말한 부정적인 ‘여류작가’상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임순득은 이들 남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조폭과 경박과 우월감으로써 저주할 금일의 ‘여류작가’를 제조한 장본인으로서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베풀 수 있는 친절이란 특별히 시설한 자선석에 여성문필가를 우대하는 정도의 왜곡된 페미니즘의 발휘였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순득의 비평활동이 가지는 의미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임순득이야말로 여성평론가라고 하는 뚜렷한 자의식을 가지고 비평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이전의 ‘여류문인’이라고 불리던 여성 중 많은 사람이 신문이나 잡지사의 기자 혹은 문단 사교계의 일원으로 양념처럼 문학 논의에 끼어 있었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판적 자의식이 부족했거나 혹은 있었다라도 표현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데 비해 임순득은 그런 문단 현실에 대해 뚜렷이 자각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여성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여성문학론을 수립하는 것을 자기 평론의 한 주요한 임무로 삼았다.

둘째는 당시에 문단 일각에서 남성 평론가들이 전개하고 있던 ‘여류문학’ 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대타 의식을 가지고 논의를 출발했다

는 것이다. 이런 출발 지점은 임순득이 여류문학을 하나의 문단 분파로 설정하여 여성작가의 작품을 통제로 변방화하는 것에 반대하여 ‘여류’라는 말을 떼고 하나의 작가로서 여성작가들을 평가하려는 노력에 힘을 기울이게 했다. 즉 여성으로서의 차이보다는 인간 해방을 지향하는 작가로서의 보편성을 여성작가에 부여하는 이론적 노력에 훨씬 치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남성처럼 말하고 남성적 기준에서 문학작품을 평가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1930년대 문단에서 여성들이 받은 대접이 차이가 아닌 차별과 억압이기에 여성작가를 남성작가와 동등한 자리에 놓고 비교하고 그 기준에 의해 남성작가를 능가함을 밝히는 것은 문단 현실에서 각별히 필요한 작업이었다.

3. 여성문학론의 현실성 : 여성해방문학에의 지향

지금 돌아보면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 문학의 현실」로부터 비롯하는 여성문학론이 1980년대 한국 여성들 자신의 해방을 향한 열망으로부터 자생적인 출발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새삼스럽고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의 문화’라고 하는 대안문화로서의 여성 문화에 대한 지향이 나온 것도 우연은 아니고 그러한 현실적 요구로부터 여성문학론이 배태되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된다.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이 실린 『여성』 제1호는 학생운동에서 사회운동으로 이전을 모색하던 여성 활동가들이 사회 전반의 변혁운동 속에서 여성운동을 사고하면서 만든 것이었다. 그런 만큼 여성문학론으로서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은, 1970년대에 지속되어 온 빈민 여성과 여성 노동자들의 운동이 1980년대에 들어서 ‘기존의 모순된 현실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여성들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여성운동의 이데올로기 투쟁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는 여성해방문학에 대한 ‘목적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출발은 『여성』 제 2, 3호와 『여성과 사회』에서는 진보적인 학술운동에 관심을 가진 여성 연구자들의 학술단체인 ‘한국여성연구회’²⁰⁾의 문학분과 성원들에 의한 여성문학론의 탐구로 이어졌다. 이들에게서 여성문학론은 “이제까지 주목되지 못했던 현실의 여성 억압적 측면을 문학작품이 우리 사회의 전체 모순구조 속에서 제대로 포착해내었는가를 따지고 그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²¹⁾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문학논의를 더 높은 수준의 리얼리즘 문학론으로 고양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은 『여성과 사회』 제2호까지 지속적으로 거듭 피력된다.

……작가가 의식적으로 여성문제를 다루고자 한 작품에서는 우리의 논의가 그 초점을 달리하여 그 작품이 진정한 여성문학에 합당한 것인가에 중점을 두게 된다. 그러므로 우선 작가가 작품에서 제기하고자 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그려내고 있는가를 따져보고, 아울러 거기서 제기된 것이 여성문제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그 해결을 제시하는 데 얼마만큼 올바른 시각을 제공하는가를 문제삼게 될 것이다.²²⁾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형상화야말로 작품의 리얼리즘적 성과를 결정 짓는 관건이라는…… 우리의 전제……²³⁾

여성문제의 경우 매개과정이 복잡하여 사회의 총체상을 올바로 인식하지 않고는 제대로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온전한 형상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

20) 현재는 (사)한국여성연구소이다. ‘한국여성연구회’는 “그 동안의 여성학 연구가 지나치게 서구적인 이론으로 경도되었음을 극복하고 한국 여성의 억압적 현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여성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목적을 가졌다.

21) 김경연·전승화·김영혜·정영훈,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 세계」, 『여성』 2(창작과비평사, 1988), p.202.

22) 위의 글, p.222.

23) 김성희·성은애·이명호, 「『토지』에 나타난 여성문제 인식과 역사 의식」, 『여성』 3(창작과비평사, 1989), p.201.

수준의 리얼리즘 문학을 요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²⁴⁾

이러한 작업을 통해 머잖아 우리의 문학이 '여성해방'이라는 별도의 명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인간 모두의 해방을 추구하는 '위대한' 리얼리즘 문학의 도정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²⁵⁾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 문학의 현실」과 그 이후 이어진 작가 작품론에서도 여성들의 삶에 대한 묘사의 사실성과 여성들이 처한 상황의 전형성을 갖대로 문학작품을 분석하면서 독자들과 작가들의 분발을 촉구해왔다. 크게 보아 여성 이미지 비평의 범주에 속하는 이 작업은 폭로와 고발로 독자들과 비평적 수용력을 기르고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들은 늘 여성해방의 궁극적 단계로 인간 해방을 상징하고 여성문학의 궁극적 단계로 위대한 리얼리즘 문학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서 여성문학의 고유성을 몰각하고, 여전히 억압적인 중심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직접적인 비판은 '또 하나의 문화'²⁶⁾ 동인들로부터 나왔다.

'또 하나의 문화' 동인들은 가부장제 문화를 집중 공략하고 대안문화를 창조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었다. 이들은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 문학의 현실」이 그것이 남성 비평가의 논리와 언어를 가지고 '남성'의 문학을 '보편'의 문학으로 지향하는 점에서 기존의 문학론과 다를 바 없다

24) 강미숙·김성희, 「현단계 노동 문학의 여성문제 인식」, 『여성과 사회』 1(창작과 비평사, 1990), p.241.

25) 김영혜·김양선·오세은, 「『태백산맥』론」, 『여성과 사회』 2(창작과비평사, 1991), p.175.

26) 이들은 남녀가 진정한 벗으로 협력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특히 하나의 대안문화를 사회에 심음으로써 유연한 사회체계를 향한 변화를 이루어 갈 것임"을 선언하고 1984년에 출발하여 동인지 『또 하나의 문화』를 11집까지 내고 있다.

고 비판했다.

즉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진보적 세계관의 미비-작가의 허위의식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도식은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의 문제와 연결시키기 위한 논법으로 매우 그럴듯하고 필진들이 한국문학의 현실을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부합될지 모르지만 객관적 논리로서 성립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필진들이 작중인물의 행동과 사고를 지나치게 작가의 세계관과 연결시키는 무리함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보여진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의 핵심 또는 중심을 가정하고 이를 인과론적으로 풀려는 논리는 필자 자신이 비판한 바의 '관념론적' 접근이며 동시에 매우 남성적인 접근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²⁷⁾

또한 대안문화로서 여성문화의 전통을 찾기 위해 고대로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과 작가에 대한 개괄을 통해 '여성문학'을 “넓게는 한국문학사에 등장하는 여성작가군을 지칭하는 말이며, 좁게는 그 문학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문화양식의 일개를 상징하는 말로 한정짓고자 한다”고 하였다. 대안문화로서의 여성문학을 상징하고 그 여성문화를 창조하고 보여주는 하나의 장으로 여성문학을 규정하였다. 여성 시인과 작가에 대한 연구는 그 이전부터 많이 행해졌지만 그것을 일관된 관점으로 꿰어내려는 시도는 처음이다.

결론적으로 여성주의 문학은 '여성들이 하는 문학이다'는 성별 분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 문화를 극복하고 참된 인간 해방 공동체를 추구하는 대안문화로서 '모성문학' 혹은 '양성문화'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문학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여성문학은 굳이 여성만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문제를 자기 경험 속에서 아프고 혹독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²⁸⁾

27) 조은, 『『여성』이 제시하는 '올바른' 여성운동의 방향은?』, 『열린 사회 자율적 여성(또 하나의 문화 2)』(평민사, 1986), p.430.

28) 고정희, 『한국여성문학의 흐름』, 『열린 사회 자율적 여성(또 하나의 문화 2)』(1986), p.123.

그 대안문화는 “여성 특유의 역사적 경험에서 유래된 특질, 즉 억압받은 자로서의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 자녀 양육 능력, 타인과의 제휴 능력 및 사려 깊음” 등 “‘진정한 여성성의 발견’과 ‘자매애’를 통해 창조된 여성문화”이다.²⁹⁾ 이런 입장에서 ‘여성과 사회’ 집단에 대해 ‘남성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 차이는 박완서의 작품을 평가하는 데서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또 하나의 문화’ 동인인 조혜정은 「박완서 문학에서 비평이란 무엇인가?」³⁰⁾에서 『여성』 2에 발표된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 세계」가 여성의 구체적 체험을 몰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성의 체험을 애써 외면하는 여성해방 문학비평’이라는 장 제목에서 그대로 보이듯이 조혜정은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 세계」에 대해 “평자들은 현실에서 여성이 받는 억압의 체험을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기를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에 현실 체험을 바탕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는 박완서의 작품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고 그래서 부당한 평을 할 수밖에 없었다”³¹⁾고 단정한다. 이 점은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 여성의 체험들은 아직도 널리 공론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가 여성이더라도 아직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즉 여성 경험의 보편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소설 속에서 그려진 여성의 심리와 삶의 조건들이 어떤 점에서 특수하고 또 어떤 점에서 보편적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여성문학론자들은 가지지 못한 것이다. 특히 많은 여성문제가 결혼하고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기혼여성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해방의

29) 조혜정, 「한국의 페미니즘 문학 어디까지 왔나」, 『여성해방의 문학(또 하나의 문화 3, 1987)』(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5), p.33.

30) 조혜정, 「박완서 문학에서 비평은 무엇인가?」, 『탈식민지 시대의 글 읽기와 삶 읽기』(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2). 이 글은 원래 『작가세계』 1991년 봄호에 발표되었다.

31) 위의 논문, pp.247~248.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 세계」의 필자들은 당시 박완서 소설이 담고 있는 기혼여성들의 문제에, 윗세대인 ‘또 하나의 문화’의 동인들보다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양측이 지향하는 여성해방의 전망의 차이가 이런 논쟁을 낳게 했다. 여성문학론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여성문학이 추구하는 ‘여성적 특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성에게 고유한 여성성을 상징하고 여성성의 고양을 목표로 한다면 이는 쉽게 그 동안의 여성 억압적 역사에서 형성된 바를 본질적인 것으로 환원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반면 여성문학이라는 용어가 필요없게 되는 것을 이상적 상태로 상징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억압적 상황에서 억압적 상황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문학, 즉 여성해방 문학을 견지하는 경우 여성문학이란 한시적인 가치와 범주를 가지는 것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는 문학론뿐만 아니라 여성해방론 일반이 부딪히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향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990년 전후 시기까지 두 집단을 중심으로 나온 여성문학론들은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현실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여성해방문학을 지향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실상 『또 하나의 문화』에는 다음과 같은 발언들도 보인다.

……문학이 인간의 자유에 대한 추구를 표방하면서도 주로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진 기존의 문학은 여성의 예측적 위치를 고차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지요. 이젠 문학이 추구하는 본래의 소명에도 어긋나는 일이었는데 그 동안 여성은 이것을 감히 비판할 생각을 못했어요. 페미니즘 문학은 이런 의미에서 문학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서 지금의 문학을 더욱 문학답게 만드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지요.³²⁾

현실의 직격한 반영과 인간해방의 이상을 형상화하는 데 선두를 달리는 이

32) 좌담, 「페미니즘 문학과 여성운동」, 『여성해방의 문학』(평민사, 1987).

시편들이 진정한 민중해방의 문학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피상적 인식의 수준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리라고 보아진다.³³⁾

물론 두 집단이 게재되는 글 모두에 특정한 입장을 강요할 만큼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니어서 필자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편차를 넘어서서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980년대 중반에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여성문학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인간성의 회복으로든, 여성성의 고양으로든 여성해방의 '목적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그것은 한국 여성의 현실에서 정당한 것이고 한국의 여성문학연구자들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혹시나 '목적의식'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문학연구자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서구의 경험에서도 여성문학론은 여성의 억압적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여성들의 운동에 동참하면서 제출되었으며, 또한 모든 문학비평(문학론)이 정치적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여성문학론(페미니즘 비평) 역시 정치적인 수밖에 없으며 또한 아직까지의 여성의 현실에서 또한 한국 여성의 현실에서 가장 정치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정치적이란 것은 "모든 이론과 지식은 애초에 왜 그런 이론을 발달시키려 애썼던가를 물어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³⁴⁾는 뜻이다. 그러므로 어떤 가치 혹은 어떤 문학의 범주가 반드시 영원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어떤 특정 시점에서 억압받는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것이 여성의 해방에 더 기여하는가 하는 점을 항상 물어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목적의식과 현실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33) 김미경·이영숙, 「현대시에 나타난 성차별 언어」, 『여성해방의 문학』.

34) 이글턴, 『문학이론입문』, p.254.

4. 여성문학론의 주체성과 식민성

1980년대 우리 여성문학연구의 출발이 외국의 문학이론에 특별히 기대지 않고 한국의 여성 현실과 한국의 문학작품에 대면함으로써 한국문학연구와 비평의 큰 폐단인 '식민성'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는 점은 여성문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학연구사를 비쳐보아도 긍정적이다. 당시에는 전문이 짧아서 외국의 선례를 참조하지 못했기도 하지만 한국 여성의 현실적 요구로부터 작품을 읽는다는 뚜렷한 목적과 관점이 있었기에 거칠게나마 한국 여성의 눈으로 작품을 분석할 수가 있었다.

그렇던 것이 1980년대 서구에서 유행한 최신의 문학연구 방법론이었던 페미니즘 비평 방법을 배운 외국문학연구자들에 의해 1980년대 말부터 구미의 페미니즘 이론이 본격적으로 수입 소개되고, 특히 1990년대에 여성작가가 대거 등장하는 것과 함께 페미니즘의 상업화에 부수되는 수요에 부응하여 그 이론들을 한국의 여성문학 작품에 적용 분석한 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³⁵⁾ 위에서 논의한 두 집단의 논의를 포함하여 여성문학논의에서 여성해방문학에의 지향이라는 목적의식이 점점 희박해졌다. 오히려 서구의 다양한 논의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할 텍스트를 찾아내는 것이 여성문학연구의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새로운 것이었다. 포

35) 이 상황을 선행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문학에도 페미니즘 문학이론의 수용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여성의 지위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여성학의 발달로 인해 여성들의 목소리가 부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문학창작과 문학비평에서의 성과는 괄목할 만한 것으로,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페미니즘 이론은 80년대와 90년대를 잇는 가장 중심적인 조류로 취급되기도 한다. 대중적인 인기와 문학적인 성과를 함께 이론 일군의 여성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관심이 외국 페미니즘 이론의 소개와 번역을 촉발시키면서 페미니즘 문학의 전성기를 맞게 된 것이다." (김미현, 『한국 여성 소설과 페미니즘』(신구문화사, 1996), pp.36~37)

스트모던 여성문학론에서는 ‘여성성’을 전통적인 남성적 언술의 개념과 가정과 구조를 전복시키는 급진적 힘으로 간주하고 합리성, 리얼리즘, 지배력, 설명 등의 개념은 남근중심 비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합리성, 총체성을 파열시키는 모더니즘적 텍스트 읽기와 쓰기에 주력했다.³⁶⁾ 이제 작가의 생물학적 성이 아닌 텍스트의 저술 효과로서의 여성성을 강조하고 탐색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990년대의 여성문학론과 한국여성문학연구에는 술한 외국 이론들이 출몰하게 되었다.³⁷⁾ 가령 ‘또 하나의 문화’에서는 전반적으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을 수용하면서 ‘여성적 글쓰기’를 적극적으로 논의한다. 1992년 제9호는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로 기획하여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이론과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통일 있는 글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헤련의 혼을 서서히 갇아 먹어 가고 있었습니다. 통일이 불가능한 삶 속에서 통일을 꿈꾸었던 헤련이 차라리 글쓰기가 불가능한 자기 삶을 주제로,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과 감정을 인정하고 자유연상적인 기법으로 글을 썼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장르와 문체의 변화를 감히 말할 수 있는 포스트모던의 시대가 아니었다구요? 오로지 순수한 이성의 인간, 인식에 바쳐진 인생, 논리 정연한 주체만이 고귀한 것이었다구요?

이런 시대에는 오로지 심하게 주눅든 여성들이 심하게 위축된 모방적 글쓰기를 주로 합니다. 남자가 되지 못한 데서 오는 조바심, 중심에 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데서 오는 공포심, 남자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려는 눈치로 글을 쓰는 여자들이 주로 지면을 얻게 되지요.³⁸⁾

이런 논지를 따라가보면 논리적 일관성, 자기 동일성을 부정하고 주체

36) 김영희·이명호·김영미,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3(1992) 참조.

37) 이에 대한 서지적 정리는 김미현, 앞의 책, pp.11~66에서 자상하게 이루어졌다.

38) 조혜정·김미숙·최현희, 「지식인 여성들의 글쓰기」,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또 하나의 문화 9, 1992), p.167.

의 분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여성적 글쓰기이고 해방의 서사가 된다. 그 밖에도 '수다'의 양식으로 '이야기하는' 행위들은 모두 여성의 자기 진술 양식이며, 자전적 글쓰기나 미친 년 뉘뒤리도 그러하다고 한다.³⁹⁾ 반면에 논리적 일관성을 추구하는 글은 남성적 글쓰기이며, 그런 글을 쓰는 여성은 남성의 비위를 맞추느라 주눅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예로 든 전혜린의 실패는 한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자각도 없는, 현실과 역사가 실종된 폐쇄된 세계에서 지독한 자기 중심주의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현실과 괴리된 삶의 문체⁴⁰⁾인 것이지, 그가 택한 글쓰기 기법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를 훼손하는 문학 텍스트를 '여성성'을 가졌다고 이름 붙이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해방적 혹은 '혁명적'이라는 가정은 부적절한 것이다. 통일된 주체를 해체하는 것 그 자체가 혁명적인 몸짓은 아니다. 더욱이 다른 조건과 비교해서 여성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억압이 엄청나게 높은 한국의 현실에서 여성이 해체해야 할 것은 자기 정체성이나 논리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억압적 현실의 제도와 관념이다.

이런 지점에서든 수입 이론의 허구성이 드러난다. 우리나라 여성작가의 작품을 연구한 논문에 무분별하게 외국이론을 갖다 대는 경우 우리 여성문학 작품이란 온갖 종류의 개념과 분석틀을 적용할 적절한 인용문을 찾아내는 대상에 지나지 않게 되고, 여성문학론 혹은 페미니즘의 시학은 문학작품이 어떻게 여성의 삶을 표현하고 여성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는 무관심한 지적 유희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문학이론이란 그 자체로서 지적 탐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의 역사를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이며, 어느 집단보다도 더 열악한 한국 여성의 삶의 현실을 문제삼는 여성문학론에서 이를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39) 김성례, 「여성의 자기 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또 하나의 문화』 9(1992).

40) 전혜린의 이런 점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최재봉, 「일인칭 단수 대명사의 세계」, 김동춘 외, 『자유라는 화두』(삼인, 1999), pp.229~252 참고.

5. 한국 여성문학론의 나아갈 길

‘우리가 이론을 선택하고 거부하는 문제는 우리가 실제 무엇을 하려 하는가에 달려 있다.’

저간 우리의 사정은 우리나라의 여성의 삶과 문학의 현실로부터 여성 문학론적인 문제제기를 시작했지만 그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우리와는 경험이 다른 서구의 각종 이론들이 소개되고 번역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특히 한국문학연구자들의 책임이 크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각종 여성문학적 이론을 검증하고 또한 우리 현실에 맞는 이론을 개발하고 구축해 나가야 할 때이다. 또한 서구 제국과는 역사적 경험을 달리하는 우리 나라 근대화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억압과 여성이 가지는 고민의 양상은 서구의 여성 경험과는 다를 수밖에 없기에 우리의 구체적 경험으로부터 추출된 여성 문학의 논리는 보편적인 페미니즘 이론을 구성하는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

여성문학론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문학을 생산하는 조건이 물질적인 면에서 다르며 이는 그들이 쓰는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성의 이데올로기는 남녀의 작품이 읽히는 방식과 그 작품이 정전으로 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텍스트는 고정된 의미가 없고 해석은 독자의 상황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문학론은 여성들은 성의 개념이 문화적으로 정의되고 재현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미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즉 그런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구성된 담론의 방식을 검토하는 수사학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여성적 글쓰기의 한 전범으로 이야기되는 여성 자서전이나 자전적 글쓰기의 경우 여성이 문학을 생산하는 물적 조건이 다른 현대계에서 일정 기간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권장되어야 하겠지만 이것을

여성 글쓰기의 전범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체험의 직접성에 기댄 글쓰기는 곧잘 자연주의적 파편성에 빠지게 된다. 물론 여성들이 글쓰기의 장에 밀고 들어서기 시작하는 처음에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여성에게 고유한 경험, 가령 임신과 출산, 육아의 경험, 여성적 성격 경험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필요하다. 이런 유의 여성의 경험에 대한 논의가 금기시되거나 아니면 남성중심의 관점에서만 논의되어 온 우리의 현실에서 여성의 관념을 깨뜨리는 힘은 여성 자신의 생생한 현실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성문학이 여성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형상화하여 여성 독자들이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여성 문학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들의 자전적 글쓰기도 여기에 일차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일정 기간 적극 권장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형식이야말로 여성적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종래 남성중심의 문화 속에서 여성이 배제되어온 역사의 결과물을 고유의 여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체험의 직접성에 매달려 문제를 여성 일반의 문제,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여성의 문제로 보는 시야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그 담론의 수사학은 의미가 없게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제기는 사실상 ‘페미니스트 시학’ 전체에 대해 해당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문학적 관습, 표현양식들을 모두 ‘남성적’이고 억압적인 것으로 배제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인간이 발전시켜온 영향력 있는 수사학으로 적극 활용할 것인가?

또 우리는 여성문학에 대해 여성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그리려는 요구와 해방된 여성의 삶을 형상하라는 모순된 요구를 한꺼번에 하게 된다. 우리가 젖어 있는 일상을 문학작품을 통해 객관적 거리를 가지고 봄으로써 우리는 여성에게 억압적인 현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러한 억압에서 벗어난 삶을 문학작품을 통해 상상함으로써 현재의 억압의 성격과 그 극복 방안을 더 잘 알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체험의 절실성에 기초하여 여성의 실제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온갖 종류의 억압에 대한 고발은 절대로 필요하며, 우리 삶에 내재해 있는 각종의 허위 의식들까지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줄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그 억압에 대한 고발, 억압을 드러내는 문학적 방법은 다양하다. 가령 70년대의 여성문학을 대표하는 두 작가 중 박완서는 여성의 억압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려내고, 오정희는 여성의 일상적 순간을 포착하여 낯설게 내보임으로써 사회적 관계 속에서 소외된 여성의 상태를 더 섬뜩하게 제시, 고발한다.⁴¹⁾ 각각 자신의 소재에 더 효과적인 수사학-문학적 방법을 구사하는 것이며, 여성문학론은 그 수사학의 효과와 방법을 명료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가와 독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의 해방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다. 기존의 지배적 남성상과 똑같이 되는 것은 해방이 아니며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양성이 조화된 것이냐, 혼재하는 것이냐, 혹은 여성성을 극대화시킨 것이냐, 새로운 여성성을 구축하는 것이냐는 등 어떤 하나의 결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여성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해방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의 삶이란 언제나 희망으로서 존재해 왔음을 생각한다면 자유롭고 평등한 여성의 삶 역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상상하고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그려내는 소설들에 인색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여성문학론이 여성의 해방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역할 모델들을 인정하고 그것의 진정성을 따지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4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상경, 「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의 탐구」, 『한국문학연구』 19(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97) 참고.

